

원호택

본회 이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인성 교육을 위한 제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한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학교교육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하게는 교육 망국론까지 들먹이는 이가 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교육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사실 지난 20여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교육받은 많은 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교육의 위기론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일까? 사실 7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대학입학 제도를 바꾸고 학교교육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교육이 상급학교 입학 준비에만 급급해서 지식을 주입하는 입시 학원화됐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비판의 소리다. 그것마저도 학생들의 삼분의 일 내지 사분의 일만을 위한 교육이요, 그 밖의 나머지 학생은 외면한 교육이었다.

이러한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인성교육이 안되고 있다

2 인성 교육을 위한 제언

는 점일 것이다. 교육자는 누구나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전인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홍익인간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학교 성과 대학입학이라는 것 때문에 극도로 경쟁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인간을 키우는 것도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가 아니라 학교교육 상황에서 교과 외 교육으로 그런 인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분석력이나 창의력은 전혀 외면한 채 진학에 필요한 단편적인 지식의 기억을 위주로 하는 인간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기초 질서를 지킨다든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도의의 함양이라든가, 자기 통제력을 키운다든가, 다른 이를 존중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생활 행동의 교육 등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과 감성, 지성과 행동이 잘 조화된 통합된 인성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 대학교육도 인격교육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학 교육이념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으로서 교양과 인격을 갖춘 성숙한 인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교양과 인격을 갖춘 인간을 만드는 교육은 불행히도 대학 교육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공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가 망국적이라고까지 비판하는 이가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겪는 경제적 위기, 지난 몇 년간에 겪었던 대형사고 등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에 의해서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간에 경쟁적이고 이기적으로 성취 지향적인 사람을 키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나 지위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어 왔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나라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학교교육에서 이런 인성 교육이 외면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이유는 그런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교육이지 학교에서 해야 할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런 인성교육 또는 품성교육은 가정의 몫이었다. 이러한 가정교육 기능이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달라졌다. 가정이 독자적으로 더 이상 인성교육을 담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고 급격히 도시화되었다. 고도의 기술 산업사회로 변신하면서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동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인성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어느 심리학자는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와 마음을 주고 받는 시간이 하루 10분만 된다면 자녀들의 많은 생활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 심리학자의 말대로 자녀가 하루 10분을 부모와 함께 하면서 인성교육이 될까? 이렇게 보면 가정이 인성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초등·중등학교가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근래 초등교육을 유치원으로 확장하는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 아동들이 공교육기관에서 하루 적어도 6시간 내지 8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인성교육의 주 교육장은 학교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를 든다. 현실적으로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배워야 할 교과목이 너무 많고 어려우므로 교과교육 외의 인성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학교교육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지식교과교육을 한 이후에 해야 할 교육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기본 목표가 모든 교과교육을 통해서 지성과 감성 그리고 덕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라

4 인성 교육을 위한 제언

면, 인성교육을 교과교육 보다 우선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교과교육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

최근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 수가 너무 많고 난이도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 교과목 수를 줄이고 교과 난이도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육 연한을 단축할 것 등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초·중등학교의 교과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는데 그 때문에 교육 연한을 줄이려는 것은 단견이다. 지난 날 우리 학교교육에서 인성 교육이 도외시된 것이 현실인 만큼 이때야말로 인성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본격적인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학 분야의 원로이신 정범모 교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병폐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바른 인성을 교육하지 못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바로잡는 최우선 과제가 초·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요, 대학에서는 입학시험에 반드시 인성의 평가를 포함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인성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도 알기 쉽게 들고 있다. 즉 무엇 보다도 먼저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정신, 공중도덕을 지킬 줄 아는 의식교육을 제의한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구체적으로 부정입학, 부정식품, 부정선거, 부정탈세, 부정축재 등을 저지르지 않고 이런 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자기통제 능력을 함양하는 것. 좀 살게 되었다고 오만 방자해지거나, 사치 낭비하는 습성을 통제하는 것, 도덕적 용기를 함양하는 것, 불의를 보고 그대로 있지 않는 것, 부정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 지방색, 학연, 계층의 벽을 쌓지 않는 것. 가족, 친족주의를 벗어나는 것 등을 들면서 이런 인성 교육은 이제 학교의 몫이라고 역설하였다. 공감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교과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거듭 언급하거니와 인성교육은 교과교육 못지 않게

학교 교육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초·중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일주에 적어도 5-10시간 정도를 인성교육에 할애하여야 한다. 요약하건대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교육의 주요한 한가지 과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